

큰스님 수행한담

# 마음의 극락 얻어요



◇ 1950년 3월 범어사 금강계단 수계후 계사 동산스님(사진 앞줄중앙)을 모시고 월하스님(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기념촬영한 수도스님(앞에서 셋째줄 왼쪽 끝).

다. 그저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 조심 살펴가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것, 즉 자기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나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라고 하고 둘째로 무조건 잘 참을 줄

을 세운 것이니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식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육신을 희생한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를 제대로 안다면 내 몸이 아니라 내 생명이라 해서 합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 더 자신의 마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물질 탐하고 명예 집착하니 내속에 갖추어진 불성 못찾고 어리석게 허송세월 보내요”

술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는 노전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노전, 중노전, 하노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중노전인 관음전, 용화전, 자장각, 대광명전 네 법당을 맡아 시공을 하게 되었지요. 아침 청소부터 사시마지, 예불까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루에 한번씩 쫓대, 다기를 청소를 해야 하니 한시라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바로 참고 견디며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철이면 스님들이 개울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서 걸레를 빨아 오게 했습니다. 그 얼음물에도 손을 담그고 걸레를 빨면 얼음에 손이 비기도 하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얼어서 물기를 꼭 짜지 못한 채로 가지고 가면 다시 빨아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다시 빨러 가지요. 몇차

를 환하게 외웠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 스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도 큰 복이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해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디. 그때 열심히 배웠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시حت말로 뼈와 살이 됩니다.

《무상계》에 보면 “서쪽에 계시는 아미타여래의 뜻은 가장 높고 당당하다. 스스로 깨끗한 마음은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 묘제는 맑고도 맑아서 초소가 없건만 산하대지에 참다운 빛을 나누더라”는 계승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의 맑고도 맑은 빛을 얻어야 합니다. 고정된 초소가 없지만 산하대지에 모습을 나누는 아미타여래처럼 우리 안에 본래 밝아 있는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내속에 이미 불성이 갖추어져 있는데 물질을 탐하고 명예에 집착하며 살다보니 귀중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집이 있었습니디. 부자로 살다가 모든 가족이 다 죽고 며느리만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기가 일쑤였습니디.

그것을 본 재석천왕이 스님으로 화해 도움을 주려고 살펴보니 이미 그 집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었어요. 스님의 모습을 한 재석천왕은 주인에게 하룻밤 자고 가자고 청하고는 그날 밤을 묵었습니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창고 밑바닥에 묻혀 있던 황금 항아리를 찾아내 주인을 불렀습니디.

“당신은 집안에 이렇게 좋은 보배를 놓고도 발견하지 못해 여태껏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것이요. 이제부터는 보배를 가지고 고통 없이 잘 사시오”.

이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서 해야 할 일은 각자 지니고 있는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즉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갖추어진 보배를 찾아 참지해인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LG 이수화학 연구소장〉

지난 10월부터 금강경독송회 울산 법당에 다니면서 마음닦는 법을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수행은 아직 초년생이다. 내가 이 법을 만나게 된 계기는 지난해 6월 장인어르신 때문이었다. 장인이 돌아가시자 집사람은 평소 알고 지냈던 속초의 한 스님에게 재를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스님은 책보시를 하라고 권했다. 49세 대신 〈금강경〉을 보시하게 된 것이 〈금강경〉 독송 수행의 인연이 됐다.

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웬지 모르게 마음 닦는 것이라든지 깨쳐야 된단다지 하는 메아리가 자꾸 들려왔다. 그래서 요가, 단전호흡, 명상, 성경공부 그리고 오행생식까지 했다. 그러나 텅빈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만족감을

수 없었지만 날이 지날수록 산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자괴감도 있었는데 오히려 일도 더 잘되는 것이었다. 금강경독송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언제든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정진하고 있다.

나는 이수화학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 실제로 연구소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실험결과가 잘 나오는 법이다. 열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 자기 생각대로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다. 그래서 실험결과에 연연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기에 딱 맞고 또 실험이 잘 안돼 부정적인 마음 연습하기에 적합하다. 심

## 틈나면 금강경 읽으며 마음공부 긍정적 사고 바뀌면서 보람커져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앞서 행한 것들은 밖에서 구하면서 채우는 공부이고, 〈금강경〉 공부하는 어두운 마음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 등을 비우는 공부라는 것이다. 가령 휴탕물을 맑히려 할 때



지어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집까지 가져 가서 격정하다 잠도 자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금강경〉 법을 만난 것이 큰 영광이고 행운이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더라도 여전히 휴탕물일 뿐이다. 휴탕물 자체가 비워져야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채우려면 일단 비워야 되는 이치와 같다.

나는 금강경독송회에 다니면서 처음 접한 것이 김재웅법사의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란 불서였다. 이 책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금강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하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 때부터 가정과 회사에서 틈나면 공부를 하였고 법당에도 열심히 다녔다. 얼마후 나는 새벽 금강경 7독송부터 시작해 하루 내내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회사까지 30~40분 소요되는 출근시간에는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한가한 시간을 이용 5~10분정도, 퇴근시간에는 〈금강경〉이나 강의테이프를 듣는 등 〈금강경〉을 통한 마음공부에 전력을 쏟았다. 처음에는 온갖 망상이 공부를 제대로 할

그래서 연구원들에게도 〈금강경〉의 귀중함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말해 준다. 대부분 연구원들은 실패한 연구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담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마음을 보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더욱 정진한다. 이것도 보시의 한 방편이런게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신행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심이 더해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이 내니 일의 보람이 배가되고, 사고도 긍정적 적극적으로 바뀌어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공경심이 절로 들었다. 그후부터 회사의 어른들을 배려하기전에는 꼭 〈금강경〉을 읽는다.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정진하고 가면 마음이 안정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항상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 남의 허물 보기전에 내 허물 씻어내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업이 돼요

아는 도덕인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런 어려운 일이라도 참을 수 있을 때 바로 극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참을 줄 모르면 절대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나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앞서간 많은 이들의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6.25때 중군포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옛 부산시청 옆에 육군병원원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은 병사들이 출자어 입원했습니다. 그때 나는 부상당해 입원한 그 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팔다리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의 팔다리를 끊어 나라의 기둥

을 세운 것이니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식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육신을 희생한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를 제대로 안다면 내 몸이 아니라 내 생명이라 해서 합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 더 자신의 마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출가해서 행자생활 할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말로는 다 못합니다. 숙가 집에서 몸이 너무 아파 부모님 걱정을 많이 시켰습니디. 보통학교 6년을 다녔지만 몸이 아파서 결석을 자주하고 아버님이 나를 업고 학교에 갔을 정도였습니디. 졸업은 겨우 했지만 병치레하느라고 학교 나간 날 수는 3년도 안될 정도였어. 아들 4형제중 셋째였는데 밤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아버님과 다른 형제들이 육고기나 생선을 사서 구워먹으면 그 냄새가 너무 심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먹었을 정도로 고기를 못 먹었습니디.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을 것 같았는지 아버님은 나를 절에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통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숙가 고향이 양산 상북면이라 통도사에서 가까웠지요. 3년 동안 행자생활을 하고 나서 삼

례를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해 일부터 그렇게 시켰던 게지요.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건만, 집에서는 그렇게 아프던 몸이 깨끗하게 났고보니 그것이 신기해서 집에 갈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나의 근본이 되었습니디.

노전시공이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시키더군요. 그전에는 공부할려고 해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컸었나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 법당에서 조그만 초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다가 빨리 자라고 꾸중을 들곤 했습거든요. 공부에도 때가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고봉스님이 강사로 있던 해인사로 가서 사교를 배운 이후, 통도사 해련스님께 대교를 배웠습니디. 해련스님은 〈화엄경〉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들 바, 한 치도 어긋남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 방편개시

##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清末) 이후 쇠퇴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歩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였고, 56세 때 찾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